

‘군산문화유산야행’ 성황리 마무리

1일 평균 3만8000여명 관람객 방문... 참여 프로그램 · 전시 · 공연 등 만족도 높아

‘밤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불리는 ‘2024 군산문화유산야행’이 시민과 관광객의 높은 호응 속에 2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군산문화유산야행’은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근대역사문화유산이 밀집된 군산 내항과 원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8월 16일과 17일, 23일과 24일 4일 동안 진행됐다.

특히 무더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여름 밤에 진행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3만8000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여기에 매일 진행됐던 50여 개 프로그램 역시 참여객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군산시에 따르면 1주차 금요일에는 타 지역 민이 70%, 토요일에는 군산시민이 70%를 차지했다. 반면 2주차 금요일에는 군산시민이 90%, 토요일 타지역민이 75%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찾은 관람객이 재방문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참여 프로그램과 전시 프로그램의 호평만큼 야행에서 선보인 화려한 거리공연과 개막공연 역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준 높은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야행은 1차와 2차의 공연에 변주를 줬다. 1차가 군산대학교 음악과와 호원대학교 공연미디어학부 학생들의 뮤지컬 갈라쇼로 막을 열었다면, 2차는 ‘우리의 자랑, 무형유산’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농악 최초 국가무형유산인 진주 삼천포농악의 길놀이 공연이 시작을 알렸다.

또한 24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유일한 무형유산인 ‘호남넙풀이굿 보존회(보유자: 하진순)’의 전통 굿을 공연으로 승화시킨 무대가



‘밤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불리는 ‘2024 군산문화유산야행’이 시민과 관광객의 높은 호응 속에 2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시민과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올해 군산문화유산야행은 지역 주민이 주도한 프로그램이 빛을 발했다. 초등학교생은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았으며, 중학생은 군산시의 상징인 초원사진관을 굿으로 제작해 선보였다. 고등학생 역시 체험부스를 직접 운영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호뭇한 미소를 짓게 했다.

118개 원도심 내 상가 역시 야행이 끝나는 밤 11시까지 연장영업에 참여해 행사 성공에 일조하였으며, 대학교, 지역자활센터 등은 별별부스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업체를 홍보하고 생산품을 판매했다.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군산문화유산야행’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고대하는 대표적인 야간형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모습이다.

김형욱 문화예술과장은 “10년 연속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에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겠다”며, “군산문화유산야행이 우리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한옥마을아트홀, 창작극 무대 올라

‘고상한 찬호씨와 남자들의 토크쇼’ 9월 13일까지 진행

한옥마을아트홀(대표 김영란)이 기획 공연한 창작극 ‘고상한 찬호씨와 남자들의 토크쇼’가 8월 28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이에 따르면 ‘고상한 찬호씨와 남자들의 토크쇼’는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지난 2021년 초연 발표 당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후 3년 동안의 각색을 거쳐 새로운 내용으로 선보인다.

이 공연은 기존의 일방적 연극이 아닌 토크쇼 형식을 컨셉으로 제작된 새로운 형태의 연극으로, 극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자 친구, 누군가의 아버지인 ‘남자’와 그들의 소통방식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극 중 등장인물 MC찬호씨(정찬호 역)는 표현에 서툰 누군가의 ‘남자’가 갖고 있는 고민과 사연을 채워 있게 다루며 관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평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전주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한옥마을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관람권은 전석 20,000원이며,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김영오아트’ 검색 또는 인터넷파크 티켓에서 ‘고상한 찬호씨와 남자들의 토크쇼’ 검색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수료식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7일 ‘2024년 전북 치유관광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8월 19~20일, 26~27일 총 4일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산림치유, △푸드테라피, △컬러테라피 등 이론과 실습 과정을 다루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산림·해양 치유, △명상 등이다.

이날 열린 수료식에는 총 59명의 교육 수료생이 참여했으며, 교육 수료생 중 희망자는 10월 중 치유관광 현장 견학과 함께 웰니스관광기획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서예대전’ 우수상 6명 선정

한국서예협회전북지회, 총 218점 입상

제35회 전북서예대전에서 6명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27일 한국서예협회전북지회(지회장 정영숙)에 따르면 이번 서예대전에는 총 33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그 중 우수상 6점, 삼체특선 15점(5명), 삼체입선 51점(17명), 특선 48점, 입선 98점 등 총 218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송현수 이사장은 “다수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감성, 작품의 기법이 예술적으로 적절하게 표현됐는가를 보는 예술성, 심미관과 구성력, 표현력 등이 전시작으로 선정 가능한가라는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했다”며 “고전 공부에 충실한 전북서예대전의 작품을 보며 열의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우수상을 받은 6작품은 각 영역에서의 대상에 준하는 작품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수상에는 광경선(익산) 씨의 작품 ‘성령의 생각 - 한글’, 신동춘(장수) 씨의 작품 ‘서회 - 해서’, 오항주(부안) 씨의 작품 ‘국화 - 문인화’, 윤재필(부안) 씨의 작품 ‘추아우 - 해서’, 이혜진(전주) 씨의 작품 ‘김철기 시 - 예서’, 전주석(정읍) 씨의 작품 ‘학주선생 시 - 행서’ 등이다.

한편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12일 진행되며, 수상작은 10월 12~17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사)추담판소리보존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부안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8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 성료

(사)추담판소리보존회(이사장 김세미)가 주관하는 제18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지난 24~25일 2일간 부안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악 발전과 국악 대중화에 헌신한 추담 흥정택(1921~2012) 선생을 기리는 이번 대회는 판소리, 고법, 기악 등 3개 부문을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총 152명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 결과 일반부에서는 판소리 대상 박지민 씨(국회의장상), 종합 대상 차해람씨(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고법 대상 권성진씨(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기악 대상 조성준씨(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등이 수상했으며 학생부에서는 종합대상 현민서(교육부 장관상) 학생이 영예를 안았다. 이어 일반부 각 부문 최우수상과 신인부, 학생부 각 부문 대상 등 40여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